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중, 강력 반발

외교부 이어 상무부도 “즉각 취소” 요구...“양국 협력에 심각한 영향” 주미중국대사관 “시장 왜곡 주장 잘못된 이야기...중국 희생양 삼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차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는 커녕 제멋대로 고집

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평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

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배)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25%(연내) 등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

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연합뉴스



‘외국 대리인’ 법안 반대 시위... 흑해 동부 옛 소련 국가 조지아에서 유럽연합(EU)·조지아 국기를 망토로 두른 시위대들이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안인 ‘외국 대리인’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방중 앞둔 푸틴 “중·러 관계 역대 최고...시진핑 현명”

“우주·핵에너지 긴밀협력...외부 도전·위협에 면역력” 국제질서 재편 의지 재확인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밀착을 과시했다. 이날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려운 글로벌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강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무역 및 경제적 관계는 외부 도전과 위협에 면역력을 갖춘 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 데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로를 칭찬하며 “현명한 정치인(wise politician)”이라고 평가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국 정상 간의 ‘브로맨스’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16~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가 중국을 방문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5선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으며 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지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면서 앞으로 산업, 우주, 평화적 핵 에너지 사용 등 다른 혁신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20조 루블, 혹은 1조6000억 위안(약 300조원)에 달한다”며 “중국은 지난 13년간 우리의 핵심 사업 파트너였으며 지난해 러시아는 중국의 4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가 “떠오르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뜻을 모아온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화에도 열려 있지만 협상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동맹국들은 상호 존중과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에 기반한 동등하고 정직한 열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분쟁 지속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영국서 첫 한인 부시장 탄생

킹스턴 자치구 지방의원 박옥진씨...간호사 활동 중

영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인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런던 남서부 킹스턴 자치구(borough, 자치도시) 의회는 14일(현지시간) 밤 연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계 박옥진(영어명 엘리자베스 박·57·자유민주당) 구의원을 부시장(deputy mayor)으로 선임했다. 런던 32개 자치구 중 하나인 킹스턴은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인 뉴몰튼이 있는 인구 17만명의 자치구로, 박 의원의 지역구는 뉴몰튼 남쪽의 울드몰튼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킹스턴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회(council) 의원들이 시장을 호선한다. 시장을 두지 않고 집행위원장이 집행내각을 구성하는 지역도 있다. 박 부시장은 시장으로 선출된 리즈 그린(자민당) 의원과 함께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킹스턴에서 시장은 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지

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중점을 두는 가치에 따라 지역내 자선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그간 영국에서 중앙 정치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에서도 한인 참여는 많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 자치구에서 권보라(노동당), 킹스턴 자치구에서 하재성(자민당) 씨가 한국계로는 처음 구의원으로서 당선됐다. 이어 2022년 권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킹스턴 자치구에서 박 의원과 김동성(뉴몰튼·자민당) 구의원이 당선돼 활동 중이다. 박 부시장은 1996년 영국 유학길에 올라 골드스미스대에서 예술행정·문화정책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영국에 정착해 지내면서 간호학을 공부했다. 구의원 당선 이후에도 현지 정신과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살스 3세 국왕이 뉴몰튼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프랑스서 호송차 총격받아 죄수 탈주

마약 조직 우두머리로 추정...호송 교도관 2명 사망

프랑스에서 14일(현지시간) 수감자를 이송하던 호송 차량이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교도관 2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괴한 일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프랑스 북서부 루앙에서 에브루로 이동하던 호송 차량을 요금소 부근에서 산탄총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호송되던 수감자 1명이 공격을 틈타 도주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괴한들은 차량 2대를 범행에 동원했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일당은 모두 도주했으며 차량 2대 중 1대는 사건 직후 다른 곳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일간 르파리앵은 탈주범이 ‘모하메드 A’란 이름을 가진 30세 남성으로, 살인 미수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소식통은 르파리앵에 이 탈주범이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달아난 괴한들과 탈주범을 뒤쫓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엑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인들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